

† 마테데스는 켈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내 마음 흔들릴 때

신윤식

혼자 힘으로
이 길 걸어온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흔들리니
문득 깊은 잠에서 깬 것처럼
새삼 알게 됩니다.

애써 가라앉힌 마음에서도
회한은 사라지지 않고 솟구칩니다.
오만했던 삶을 조용한 눈물로
쏟아내고 싶습니다.

창백하게 상한 내 영혼을
생명의 말씀 앞에
절규하듯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넉넉한 품으로 들어가
사랑에 결박되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1.25

발행호수 제20권 47호

민 음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7:35절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으로 알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다.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신자는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무엇이 헛된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정말로 세상에서 힘이 된다고 믿습니까? 돈과 권력을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세상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참된 힘이고 옳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지식만 있으면 답할 수 있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지혜가 옳습니까? 지혜가 옳다면 우리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비웃음이 오든 상관없이 지혜를 따라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를 가족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8:19-25

듣고
행하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많은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한 형편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연관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율법의 실천에 능한 바리새인들일까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인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특출한 실천적 삶을 보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었고 본받을 만한 행실을 보여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을 기다리고 말합니다.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 6: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과 연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아들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로 허락된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기에 소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이나 실천,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되는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 등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자기 믿음에 대해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실망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며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를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기어코 영광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

를 바라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은 잠이 든 상태에서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은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자 잠을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잔잔하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대개 신자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형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안의 상황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다가 광풍이 불고 위태로워지자 예수님께 가서 '살려 달라' 고 소리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들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과연 지혜가 옳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믿는 너희나 우리가 다르지 않다' 는 것을 실감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

고 묻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다 없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착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기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일이 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연합합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예수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수준이라면 평안할 때는 나의 삶을 즐기다가 어려우면 예수를 부르는 종교적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는 삶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이제 살았다’ 라며 평안해진 상황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니며 그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악한 세력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 둔다면 바람이 불든 잔잔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평강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께 믿음을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며 이 행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 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 32:4)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앙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3절)고 하고,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앞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7절)고 말합니다. 그리고 9-11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파난쳐이시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모든 삶이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질병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앙으로부터도 면제되며 어떤 화도 겪지 않는 안전한 생활을 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신자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

주일오후설교

시 91:1-16

하나님을 향한
신뢰

(95강 10.14일 설교)

으며 편히 살고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91편이 비록 들을 때는 힘이 되는 내용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 현실에 빚대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게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실감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괴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고 큰 어려움이 계속 되면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게 되고 말씀 또한 현실 속으로 사실이 아닌 괴리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91편은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91편 저자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러한 분의 은밀한 곳이라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분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 역시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현실과의 괴리 때문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곳은 생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하나님과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은 항상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생명의 완성이로 끝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니다. 때문에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를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케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죽음과 실패의 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승리는 육신의 성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해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악하고 강한 세력이라고 해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3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지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중히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견고한 보호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5절부터 고백하는 것처럼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염병, 재앙,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전혀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그러한 일들을 전혀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르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 8:35)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신자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곤고와 박해 등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신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재앙과 시험과 유혹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앙이나 어려운 일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자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육신에 두고 있느냐 영혼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은 세찬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육신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실 뿐입니다.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은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붙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 죽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우 다 백성들은 자
신들의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
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는 죽이려고 꾀를 내기까
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스홀과 스바냐라는 사
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

람을 보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가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면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누리던 평화는 깨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위기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대로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유다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그 같은 사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괜히 자신들의 트집을 잡는 말로 들려졌던 선지자의 말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로 드러나자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 간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벨론 침략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과 갈대아 인들을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심으로써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수요일설교
렘 21:1-14

두 길

(53장 10.17일 설교)

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말씀에서는 도무지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도 불쌍히도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자비는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난 유다를 아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면서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앞에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길을 두었다면 유다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앞에 두었다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다 앞에 두 길을 두었다면 지금 우리들 앞에도 두 길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사는 것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예전의 평안을 누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살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유다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며 버티려고 하면 망할 것이고 행복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곧 앞서 말한 대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행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고자 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늘 살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살고자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자비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오직 관심은 자신이 사는 것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것 역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죽든 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고자 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가 숨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깨
신앙고백 : 다 함 깨
찬 송 : 150(135)장
교 독 : 79(요15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502(259)장
성 경 : 눅 8:19-25
말 씬 : 듣고 행하는 자(3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2(46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찬 송 :
기 도 :
찬 송 :
성 경 :
말 씬 :
기 도 :
찬 송 :
주기도문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7강)

■ 교회소식 ■

1. 재건총회신학원 건물 건축이 시작되어서 전국교회에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은석교회도 12월 둘째 주일까지 헌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오늘 오후 3시에 재건행복섬교회당에서 이상임, 박순임 권사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은석교회 오후예배는 생략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송수경 집사

이단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이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 영생교들처럼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내세우는 등의 반기독교적적이고 반기독교론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난 단체들은 쉽게 이단임을 알 수 있지만 반기독교론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처럼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사실 일반 신자들이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신자들은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신자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체험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그 또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현대 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현대 교회는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하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우쳐 있는 것은 현세의 복, 즉 기복주의와 체험적 신앙이다. 그리고 성경을 윤리 도덕과 교양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목사도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인격이 훌륭하면 '목사답다' 라고 하고 그가 하는 모든 설교는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이처럼 기복적인 신앙과 체험, 윤리 도덕에 파묻혀 있는 교인들에게 이단이 동일하게 기복주의와 체험적 신앙, 그리고 윤리 도덕을 앞세우며 접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추종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성경의 무지에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자기의 주관적 체험에 더 확실성을 두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믿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 해도 자신은 분명 체험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자기 체험에 뉘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단의 말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과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이라는 책이 한국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생각해 보자. 이들의 책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인간의 심리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뭐든 할 수 있다' 는 말을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신자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필독서로 강조를 하기도 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목사 의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기준해서 이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반기독교적적이고 반기독교론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단보다는 한국교회와 동질적인 모습과 주장을 하면서 접근하는 이단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단이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며 접근을 하고 비복음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복음에 관심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 주장에 쉽게 현혹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통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결과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뽕 잡는 게 매' 라고 교회 부흥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채택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